

勞 動 經 濟 論 集  
第22卷(1), 1999. 6, pp. 109~140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류재우\*\* · 최호영\*\*\*

### < 目 次 >

I. 서론	IV. 자영업부문 고용비중 변화요인의 분석
II. 자료 및 용어	V. 요약 및 결론
III. 자영업 부문의 특성 및 시간상의 변화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우리 나라의 고용에 있어 자영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1998년 10월 현재 취업자 전체의 29%가 자영업자이다 (<표 2 참조>). 비농 전산업의 경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1996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과 노동경제연구회 세미나 참석자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의 사용을 허락한 통계청에 사의를 표한다.

\*\*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삼척대학교 강사.

우에도 그 비율은 25.3%에 달하며, 여기에 자영업자를 보조하는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하면 비농부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 전체 중의 30% 정도가 자영업에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 된다. 비농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에 있어 1994년 미국은 7.5%에 불과하고 1996년 일본의 경우 11.2%라는 점과 비교해서도 우리의 자영업 부문의 비중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자영업주들은 소규모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성장률에 있어서의 편차가 크고 또한 사업상 실패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자영업 부문은 또한 산업 변동의 중요한 한 원천이 된다. 또한 자영업 부문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바, 최근 사회안전망의 확충 과정에서 자영부문을 편입하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자영업 부문이 우리 경제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 그것이 갖는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자영업부문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로서 실증 분석을 통하여 우리 나라 자영업주들의 특성 및 그의 변화과정을 밝히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어떤 사람들이 자영부문에 종사하고 있는가, 여성의 자영업비율은 왜 낮은가, 임금노동자와 비교할 때 자영업주들은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대변되는 '능력'(또는 인적자본의 양)에 있어서 우월한가, 자영업주의 고용은 안정적인가 등에 관심을 갖는다. 아울러 1997년말 이후의 외환위기과정에서 자영부문이 고용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그것이 사회정책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에도 관심을 둔다.

한편, 시계열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 비농부문 취업자중 자영업주의 비중은 1963년의 31%로부터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왔었으나, 1990년부터는 증가추세로 반전하였다. 우리 나라의 자영업주 비율이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의 이와같은 추세변화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추세반전이 성, 연령, 학력, 산업별 노동자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이 증대되었기 때문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 된다.

## 2. 이론적 배경

어떤 사람이 기업가(자영업주)가 되는가에 관한 이론은 Lucas(1978)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능력에 있어 위계적(hierarchical)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우수한 자들이 기업주(자영업주)가 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가(자영업주)의 비율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한계적인 기업가들이 임금노동자가 되기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Lucas의 이론은 선진국들에서 왜 자영업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

주지만 1970년대 중반이후 증가세로 반전된 미국의 경험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Blau(1988)는 Lucas의 연장선 위에서 시계열자료를 분석하며 노동자들의 경영능력 증대가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의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ucas와 비슷한 생각에 기초하면서도 Evans and Jovanovic(1989)은 높은 기업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큰 초기자본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업가가 된다고 하며 유동성 제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Blanchflower and Oswald(1998)도 유사한 점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Meyer(1990)는 유동성 제약이 흑백간의 자영업주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고 있다.

노동자간의 능력분포가 위계적이라고 하는 Lucas류의 제한적인 가정에서 벗어난 자영업 선택 모형으로는 Ryoo(1994)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노동자들이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영부문을 선택한다. 이 모형은 자영업주들의 평균소득이 임금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시기에 자영업주 비율이 상승해 왔다고 하는 (Aronson(1991)) '역설적' 현상이 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자영업은 위의 연구들에서는 상대적으로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선택하는 부문인데 비해 다른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임금노동자들에 비해 자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타부문(rest of sectors)'으로 취급된다. Moore(1982)에 있어서는 자영업부문은 임금부문에서 차별받는 노동자들이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부문이다. Evans and Leighton(1989)도 경험연구를 통해 능력이 낮은 노동자들이 자영업주가 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영업주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있어왔다. 그러나 자영업주 집단이 Lucas식의 '기업가형'의 것인지 아니면 임금부문에서 경쟁력이 없는 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의 것인지 둘 중의 하나로 성격규정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자영업주는 매우 이질적인 집단이며 사실 양자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주 범주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두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자는 기업가형에 가까운 것으로, 그리고 후자는 생계형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을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절에서는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 기술한다. III절에서는 학력, 연령, 산업별 분포를 중심으로 자영 부문 취업자의 특성을 정리하며, 아울러 이들의 고용은 안정적인지, 최근의 외환위기과정에서 자영부문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IV절에서는 자영업주 비율 추세 변화의 요인에 대한 분석이 행해지며, 요약 및 결론은 마지막 절에 제시된다.

## II. 자료 및 용어

본 연구에는 1985년 1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통계청에서 월별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이하 '경활' 원자료라 부름)가 이용되었다. 자영업 부문의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연평균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본 연구에 있어서는 편의상 대부분의 경우 각 연도에서 특정한 달의 자료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연평균으로부터의 계절적인 편차가 비교적 작은 10월을 선택하였다. 한편, '경활' 자료는 설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인적 속성에 따라 상이한 표본 추출률을 적용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평균, 표본오차 등의 통계치는 이들 추출률(의 역수)을 적용하여 구한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영업형태의 경영이 지배적이었으며 산업화의 과정에서 비중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농업부문을 제외한 비농부문에서의 취업형태에 주된 관심을 둔다. 그 이유는 첫째, 근대부문에서의 취업자의 대다수를 점하는 임금노동자와의 비교가 보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1990년을 기점으로 한 자영업주 비율 추세의 반전이 비농부문에서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연보』(이하, 『연보』로 부름)는 '자영업주'를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한 사람 이상의 유급 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즉 고용주이며 다른 하나는 '유급 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즉 자영업자이다. 사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구분은 유급종업원의 수가 수명에 불과할 때에는 커다란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면에서 매우 다른 집단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데, 혼란을 피하기 위해 '자영업자'는 '자영자' 또는 '순수 자영업자'로 부르고 이에 '고용주'를 더한 것을 '자영업주'로 부르기로 한다. 여기에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것을 '자영 근로자' 또는 '자영부문 종사자'로 부르기로 한다.

### III. 자영업 부문의 특성 및 시간상의 변화

#### 1. 자영업 부문의 고용비중

<표 1>에는 『연보』 및 ‘경황’ 원자료로부터 계산된 자영업 부문의 고용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전산업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부문 취업자 전체의 고용 비중은 1970년에는 61%에 이르고 있었다. 그 후 농업 비중의 감소추세에 맞춰 자영근로자-그 중에서도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10명중 4명이 자영근로자로 취업되어 있다. 비농부문의 경우 4명에 한명꼴로 자영업주인데 이들의 3분의 2 이상은 순수한 자영업자이며 나머지가 고용주이다. 순수 자영업자의 경우 많아야 3분의 1정도만이 사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노동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취업자 중의 자영자 비중에 있어서는 남녀간 차이가 별로 없으나 고용주 비중에 있어서는 여자가 훨씬 작다.

비농부문 자영업주 비율을 시계열로 보면 역시 1990년까지는 뚜렷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그 때를 기점으로 반전되어 현재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990년과 1998년 사이의 경우, 265만명의 비농취업자 증가자 중의 45%는 자영업주일 정도로 고용증가에서 자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주 증가의 80%가량은 순수 자영업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사실 전기간에 걸쳐 자영자 비율의 변화는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를 지배하여 왔다.

‘전통 부문’ 또는 ‘전근대적인 부문’으로서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자영부문이 이처럼 역사적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왜 확대추세로 반전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이다. 특히 현재의 우리의 자영업 비중이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할 경우 그러한 비율 추세의 반전은 더 큰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1]은 1인당 GDP로 대변되는 경제 발전의 정도와 자영 근로자 비율에 관한 국제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취업자 중의 자영근로자의 고용비중

(단위 : %)

		70	80	85	88	90	92	94	96	97	98	
전 산 업	계											
	자영업주	34.2	33.9	31.3	30.2	28.0	28.5	27.8	27.9	28.3	29.3	
	무급가족	27.0	18.8	14.6	12.8	11.4	10.5	10.2	9.3	8.9	10.3	
비 농 전 산 업	계	자영업주	27.0	26.4	24.9	24.1	21.8	23.0	23.0	23.8	24.4	25.3
		(만명)	(125)	(227)	(279)	(323)	(323)	(367)	(395)	(437)	(456)	(443)
		(여성비율)	(31.6)	(33.2)	(32.2)	(34.3)	(30.8)	(30.3)	(29.3)	(30.6)	(31.1)	(29.7)
		고용주	-	-	7.3	7.2	7.8	8.4	8.4	8.6	8.6	8.0
		자영자	-	-	17.2	17.3	14.0	14.7	14.7	15.3	15.7	17.3
		무급가족	9.0	7.5	6.9	6.6	6.2	6.0	6.3	6.0	5.8	6.1
	남	자영업주	26.7	27.2	26.9	25.9	24.9	26.3	26.8	27.4	28.1	29.4
		고용주	-	-	9.8	9.9	10.6	11.6	11.3	11.7	11.6	10.8
		자영자	-	-	17.0	15.9	14.3	14.9	15.5	15.8	16.5	18.6
		무급가족	4.0	2.0	1.2	1.1	1.1	1.2	1.0	0.9	0.9	0.9
	여	자영업주	27.7	24.9	21.4	21.2	16.9	17.8	17.2	18.4	18.9	19.0
		고용주	-	-	3.2	3.0	3.5	3.5	3.9	4.0	4.2	3.7
		자영자	-	-	17.5	19.5	13.5	14.4	13.5	14.6	14.5	15.4
		무급가족	20.2	17.5	16.4	15.1	13.8	13.4	14.4	13.7	13.2	14.2

자료 :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판 및 '경황' 원자료.

주 : 1. 하단 패널의 '비농'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의 경우 비농가를, 그 밖의 경우는 농업을 제외한 전산업을 의미함.

2. 98년의 통계 및 고용주와 자영자에 관한 통계는 해당년도 10월치이나 그 이외의 것은 농가를 제외한 전체의 연평균이기 때문에 고용주와 자영자 비중의 합계가 자영업주 비중과 일치하지 않음.

그림에서의 자영근로자 비율은 ILO(1995)에 나와 있는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별-산업별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빠진 OECD국가들의 취업자 중의 자영근로자 비중에 관한 자료를 OECD(1992)로부터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다.<sup>1)</sup> 그림에는 총36개국이 포함되었는데 국가간의 자영업주에 대한 통계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sup>2)</sup> 또한 그림에는 OECD국가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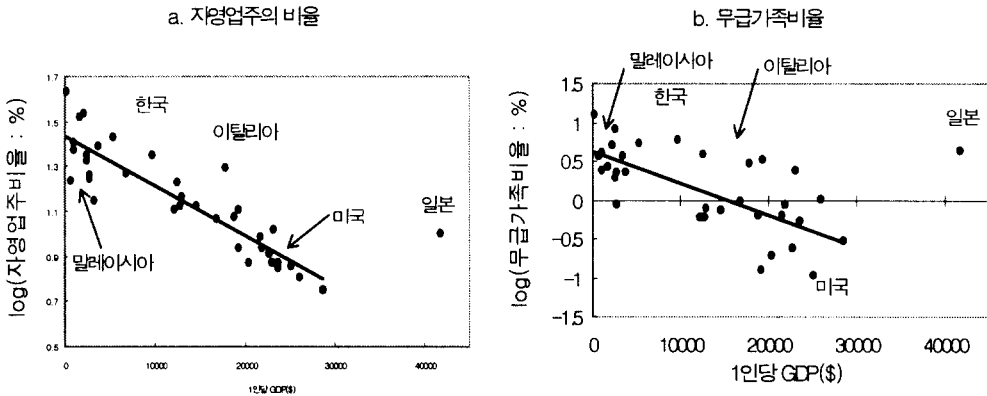
1) ILO 자료는 전직실업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계산된 자영업주 비율은 취업자만 가지고 계산된 OECD의 자영업주 비율 자료와는 개념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우선 미국, 일본, 한국 등에서는 법인화된 사업체(incorporated enterprises)를 소유,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용자로 간주하여 자영업주(self-employed worker, 또는 own-account worker) 범주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자영업주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자영업주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주간의 구분에 관해 미국에서는 자영업자의 기준을 '(가족) 사업의 이윤을 공유하는 자'로 하여 가족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를 모두 자영업자에 포함시키며, 종사상지위 분류의 국제 기준(ICSE)에서도 "가족사업체에서 사업체의 장과 동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한 표본선택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그림 1]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그림에는 환율변동으로 달러표시 1인당 GDP의 큰 변동을 겪었던 일본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자영업주 비율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과 1인당 GDP간의 회귀선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 발전 수준과 자영업근로자의 비중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준다.<sup>3)</sup> 우리의 경우 두 비율 모두 회귀선보다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발전단계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자영업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sup>4)</sup> 즉 우리는 발전단계에 걸맞지 않은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왜 근래에 들어서 자영업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림 1] 비농 자영 근로자의 비중과 1인당 GDP의 국제 비교



자료: 자영업근로자 비율: 한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경찰' 원자료 및 日本 總務廳 統計局, 『勞働力調査年報』, 1997에서 구함. 그 밖의 나라 자료는 ILO (1995)에서 계산한 것이며, OECD국가 중 ILO 자료에서 빠진 나라의 수치는 OECD(1992)에서 구하였음. 1인당 GDP: UN, Statistical Yearbook, 1997.

일한 정도의 관여(commitment)를 하며 일을 하는 자"는 모두 자영업주로 분류하고 있으나 (ILO(1995)), 우리 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가족사업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을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고 있다.

3) 1인당 GDP를 x (\$10,000)라 할 때, 회귀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t값).

$$\log(\text{자영업주 비율}) = 1.44 - 0.223x, R^2 = 0.81, \\ (49.01) \quad (-11.97)$$

$$\log(\text{무급가족 비율}) = 0.630 - 0.41x, R^2 = 0.48. \\ (5.32) \quad (-5.33)$$

4) 1995년의 경우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 및 무급가족 비율의 실제치는 각각 23.7%와 6.0%이었으나 회귀식으로부터의 예측치는 각각 16.66% 및 1.70%에 불과하다. 일본을 포함한 회귀식으로부터도 거의 비슷한 예측치가 얻어진다.

주: 그림에 포함된 나라는 총 36개국이며, 연도별로는 1995년(일본, 푸에르토리코, 한국), 1994년(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태국, 파라과이,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1993년(덴마크, 독일, 말레이시아, 오스트리아, 파나마), 1992년(이집트), 1991년(파테말라, 방글라데시), 1990년(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캐나다, 터키, 포르투갈), 1989년(그리스) 등으로 분포되어 있음. 단, 무급가족비율 도표에서는 룩셈부르크, 영국, 포르투갈, 프랑스가 제외됨.

## 2. 자영 부문 종사자의 특성

### 일반적 특성:

<표 2>는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에 관한 요약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특징만을 열거하여 보자. 자영근로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자영자의 경우 임금노동자와 비슷하나 고용주의 경우에는 매우 낮으며,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91%에 이른다. 또한 여자 취업자 중의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자영자의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남자 가족종사자와는 달리 이들 가족종사자의 80% 이상이 배우자를 갖고 있다. 결국 '무급가족종사'는 여성 기혼자에게 한정된 현상이다. 한편 자영근로자는 고용주를 제외하고는 임금 노동자에 비해 교육년수<sup>5)</sup>가 작으며, 변이계수도 자영부문 종사자의 경우가 더 크다.

<표 2> 비농부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특성의 요약(1998. 10.)

	종사상 지위	여성의 비중(%)	가구주 (%)	유배우자 (%)	교육년수		연령		노동시간	
					평균	변이계수 x100	평균	변이계수 x100	평균	변이계수 x100
전체	고용주	18.2	86.9	90.0	12.77	0.49	42.53	0.50	56.94	0.58
	자영자	35.0	71.7	82.8	10.67	0.47	43.45	0.38	58.19	0.43
	무급가족	91.3	1.2	90.6	10.27	0.71	40.61	0.62	55.43	0.75
	임금노동	38.4	58.8	67.1	11.92	0.20	37.09	0.23	51.15	0.19
남자	고용주	-	79.0	76.8	12.97	0.52	42.72	0.56	56.38	0.63
	자영자	-	60.3	58.0	11.18	0.47	43.51	0.46	58.12	0.53
	무급가족	-	1.2	3.5	11.48	2.15	34.90	3.58	49.37	2.36
	임금노동	-	50.0	45.5	12.41	0.23	37.97	0.28	52.60	0.23
여자	고용주	-	7.8	13.3	11.86	1.29	41.68	1.14	59.44	1.37
	자영자	-	11.4	24.7	9.74	1.03	43.33	0.69	58.33	0.80
	무급가족	-	0.1	87.1	10.16	0.74	41.15	0.59	56.01	0.78
	임금노동	-	8.7	21.5	11.15	0.37	35.67	0.40	48.76	0.31

자료: '경황' 원자료

5) 교육년수의 계산에서는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자들이 각각 6, 9, 12, 14, 16년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그리고 각급 학교의 중퇴자들은 그 아래 단계 학교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를 하였다.



남자 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부문 종사자는 모두 임금노동자보다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sup>6)</sup> 흥미롭게도 임금노동자의 경우와는 달리 자영 근로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여자의 노동시간이 더 길다. 또한 여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와 여타 자영 근로자간의 노동시간 차이는 별로 없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몇 가지를 주목할 수 있겠다. 우선 자영부문 종사자와 임금노동자간의 이질성이다. 양 부문 종사자는 인적 사회적 특성에 있어서 매우 다르다. 평균적으로 말하여 자영업주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여성일 가능성이 작고 연령은 높으며 배우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고 교육수준은 약간 낮다.<sup>7)</sup> 그 뿐 아니라 자영업주 중에서도 '고용주'와 '자영자' 간에는 평균 교육 수준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자영근로자 각 범주 내에서의 이질성이다. 교육수준, 연령, 노동시간에 있어서의 변이계수의 크기로 측정된 자영근로자 집단 내의 이질성은 임금노동자의 그것에 비해 매우 크다. 이는 자영업이라는 범주에는 원초적인 형태로 자영업주 자신의 노동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식인 '생계형'에서부터 전문직종, 첨단직종, '기업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업 형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의 반영이다.

자영근로자의 성별 차이도 주목할만하다. 우선, 고용주 집단은 남성 지배적이나 반대로 무급 가족종사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여성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들 여성 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배우자를 가지고 있으며 연령, 노동시간 등에 있어서는 여성 자영자와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여성 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부부 공동의 가족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구주 기준에 의해 남자만이 자영자로 분류됨에 따라 가족종사자로 분류된 사람들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와 자영업주간의 구분이 거의 무의미하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점을 제시한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자영업주에 관해 논할 때 주로 남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연령

남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자영근로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은 것은 이미 보았다. 자영업주의 연령분포를 <표 4>를 통해 볼 때 분명히 자영업은 노동시장으로의 신규진입자가 선택하는 부문은 아니다. 자영업주는 40세 정도를 정점으로 한 단봉(unimodal)분포를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20세에서 40세 전후까지 고원(plateau) 또는 M자형 분포를 한다. 이러한 연

6) 노동시간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주당 18시간 이상 노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경우 18시간 미만자는 취업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7) 1998년의 경우 자영업주 전체의 평균 교육년수는 11.3년이다.

령 분포상의 특성으로 인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주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남자의 경우 65세 이상 취업자의 반 정도는 자영업주이다.

<표 3> 비농 자영업주의 연령별 분포 및 연령집단별 자영업주 비율

(단위 : %)

		연령		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도	연령												
연령별 분포	남	98		100.0	0.2	1.1	5.8	12.5	20.4	19.4	15.2	11.1	7.3	4.5	2.5
	여	98		100.0	0.7	3.3	7.9	11.4	18.5	18.2	14.0	9.6	6.5	5.0	4.9
자영업주 비율	남		85	26.8	0.5	4.8	14.1	26.2	33.1	36.7	38.6	35.4	47.0	55.8	73.3
			90	24.9	0.6	3.7	11.2	22.0	32.1	34.3	37.0	32.9	33.9	39.5	52.1
			95	27.3	4.6	6.3	10.8	23.9	33.3	38.6	40.3	34.3	34.2	31.6	43.2
			98	29.4	4.5	7.2	11.8	22.6	32.2	37.8	42.6	40.2	36.3	38.3	40.4
	여		85	20.7	0.5	4.2	16.2	24.9	27.1	30.7	35.0	37.8	37.0	40.3	51.2
			90	17.0	0.2	3.4	11.8	18.7	20.9	24.4	26.8	29.2	28.3	29.9	39.4
			95	18.1	5.0	4.5	10.7	19.8	22.1	24.3	27.0	27.1	26.4	27.3	31.7
			98	19.0	5.3	4.7	10.6	18.0	21.7	23.7	26.9	26.6	24.4	31.1	39.1

자료: '경찰' 원자료.

연령에 따른 자영업주 비율의 상승현상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되는데 (Bregger (1996)),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설명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적극적인 요인으로서 노동자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 평판 등의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로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소극적 요인으로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임금부문에서 규정된 노동시간 또는 노동 강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고 또한 기술발전에 의해 노동자가 지니고 있는 숙련이 낙후됨으로써 임금부문에서의 비교우위를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 해고, 정년의 도래 등의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임금부문에서 밀려난 사람이 다시 노동인생을 지속할 수 있는 장으로서 자영부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Evans and Leighton (1989)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자영업범주로 새로이 진입할 확률은 연령과는 무관하다. 결국 연령에 따른 자영업주 비율 증가 현상은 주로 자영업주로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천천히 노동력으로부터 퇴장하는 현상(Quinn (1980))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연령과 자영업부문으로의 진입 확률간에 미국에서와 같은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패널 자료의 분석이 필수적이거나 이는 후속 연구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표 5>를 통해서도 연령과 자영부문으로의 진입

확률간의 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추론은 가능하다. 표의 1985년에서 1995년 사이의 자료는 우하향의 대각선 방향으로 읽을 경우 각 세대군(cohort)의 연령이 5년 증가할 때 자영업주 비율이 얼마큼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 남자의 자영업주 비율을 보면 45세 미만자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모두 상승한 반면 45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소하였다.<sup>8)</sup> 이같은 사실은 임금부문으로부터 자영업주 범주로의 진입자 수에서 역방향으로의 퇴출자 수를 뺀 '순유입자 수'가 나이에 따라 증가하다가 30대 중반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40세를 전후한 시기에는 음이 되어 순유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같은 점이 자영부문으로 신규로 진입할 확률이 나이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지는 않는다. 다만 자영업부문으로부터의 퇴출률이 나이에 따라 증가하지 않기로 한다면,<sup>9)</sup> 위의 사실들은 적어도 1985년 이후에 있어서는 나이에 따른 자영업 진입확률의 증가현상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기껏해야 40세 전후까지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 교육 수준

자영업주 내의 각 집단간에는 특히 교육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998년의 경우, 남자 고용주와 자영자간의 평균 교육년수 격차는 1.8년이나 되며 남녀 자영자간의 학력격차도 1.44년에 이른다(<표 3>). 그런데 <표 4>의 상단 패널을 보면 고용주와 자영자간에는 평균 교육년수의 차이가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음이 발견된다. 즉,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고용주의 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반대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는 특징적인 패턴이 존재한다.<sup>10)</sup> 이같은 사실은 고용주가 '기업가형'에 가까운 자영업주이며 자영자가 '생계형'에 가까운 자영업주라는 우리의 성격규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고용주의 비중은 성을 불문하고 모든 학력수준에서 줄어들이었으나 대졸 남자의 경우가 비율변화로 따져서 감소폭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 반대로 자영자 비율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거의 전 학력에 있어서 증가를 하였으나(전문대졸자를 제외하고 볼 때) 그 증가폭은 저학력자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이는 저학력자일수록 외환위기 과정에서 임금부문에서 많이 밀려났고 이들 중 다수가

8) 이로 인해 연령에 따른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 경향이 약화되어 1995년 이후에는 자영업주 비율이 40대에서 정점에 이르러 정체 또는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9) 미국의 경우 1년 사이에 자영업으로부터 퇴출하는 비율은 19세 전후에는 50%를 넘다가 40대 초반에는 20%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vans and Leighton (1989)).

10) 전문대졸자의 경우는 예외로서 자영업주 비율이 여타 학력자에 비해 매우 낮았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 비율이 증가하여 대졸자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전문대(또는 그 전신인 초급대)의 다수가 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사, 간호원 등 자영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작은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데 치중하고 있었으나 이후 교육대학이 4년제로 바뀌고 동시에 전문대의 영역도 다양화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자영자로서 재취업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아울러, 저학력 고용주일수록 사업이 영세한 바, 이들의 사업이 가장 많이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주로부터 자영자로 바뀐 것도 또한 그같은 변화 방향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수도 있다.<sup>11)</sup>

<표 4> 학력별 자영업주 비율 및 자영업주의 학력별 분포

(단위 : %)

		고 용 주								자 영 자							
		남				여				남				여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 대	대졸 이상
자영업주 비율	85	6.2	10.6	5.6	18.2	2.6	3.4	4.1	8.3	21.0	17.0	8.0	7.7	22.7	8.8	4.7	15.0
	90	7.0	11.1	9.6	17.1	2.8	3.9	1.8	7.1	20.1	13.8	6.4	6.0	17.6	8.9	8.4	11.2
	97	7.5	12.1	11.9	15.4	3.6	4.4	3.2	6.4	23.1	17.8	9.1	7.2	19.8	11.5	6.5	12.2
	98	6.7	10.4	10.3	14.9	2.7	3.9	2.8	6.1	28.1	20.8	12.1	8.1	20.9	13.0	6.4	13.2
자영업주의 학력별 분포	85	22.1	37.1	1.2	23.1	8.4	5.7	0.5	1.9	31.5	25.2	0.7	4.1	30.7	6.1	0.2	1.4
	90	17.6	40.8	3.3	20.8	7.3	7.6	0.3	2.3	28.3	28.2	1.2	4.0	25.6	9.7	0.9	2.0
	97	13.1	41.1	5.8	20.5	6.6	8.9	1.1	2.8	22.1	33.2	2.4	5.2	20.1	12.7	1.2	3.0
	98	10.5	38.4	5.1	27.9	4.8	8.5	1.1	3.8	20.2	35.1	2.7	7.0	17.2	13.0	1.1	3.7

자료 : '경찰' 원자료.

주 : 상단 패널에서의 수치는 비농업 부문에서의 성별 학력별 취업자 중에서 고용주와 자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하단 패널의 각 학력별 비중의 남녀합계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범주별로 100%임.

### 노동시간

<표 5>에서 보듯 1985년의 경우 자영업주의 긴 노동시간은 주로 그들 중에 72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컸던 데에 기인한다. 그러나 1997년의 남자의 경우에는 자영업주의 평균 노동시간이 긴 것은 주로 그들 중에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54-71시간의 비교적 장시간 노동을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11) 절대수치로 보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저학력 자영업주의 수는 크게 감소했고 고학력 자영업주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던 바, 이상의 논의와 반대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경찰' 원자료에서 15세 이상 남자를 학력별로 보면 1977. 10과 1998. 10 사이에 중졸자, 고졸자, 전문대졸자, 대졸자는 각각 -16.3%, -5.3%, -12.3%, 20.3% 변화하였으며, 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22.8%, -6.7%, -13.3%, 20.5%였다. 학력별 자영업주 수의 절대수치의 변화의 대부분은 이처럼 저학력자 수는 크게 감소하고 대졸자는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경찰' 자료에 있어서의 표본개편이 이루어졌던 데에 기인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을 나타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표 5> 비농부문 취업자의 노동시간 분포

(단위: %)

성 별	남						여							
	자영업주			임금노동자			자영업주			무급가족	임금노동자			
구 분	연도	1985	1997	1998	1985	1997	1998	1985	1997	1998	1998	1985	1997	1998
시간	0-17	0.6	2.1	3.3	0.7	6.2	2.1	1.4	0.8	8.1	16.2	1.4	2.3	4.6
	18-35	2.1	1.6	5.0	1.3	5.6	4.1	5.9	1.4	7.2	7.0	3.5	5.6	8.8
	36-53	17.8	27.3	33.6	34.4	25.2	52.2	23.9	51.0	26.2	29.9	37.5	61.1	57.9
	54-71	47.1	51.6	42.7	50.1	42.6	34.2	36.7	40.8	39.7	34.3	47.1	27.4	24.7
	72-	32.3	17.4	15.3	13.5	20.5	7.5	32.1	6.0	18.9	13.2	10.6	3.5	3.9
	평균	66.0	59.1	55.8	58.3	53.3	51.7	63.6	56.3	54.4	47.5	56.0	48.5	46.9
	변이계수x100	0.46	0.36	0.48	0.26	0.17	0.26	0.84	0.71	0.93	1.26	0.39	0.27	0.38

자료: '경찰' 원자료.

주: '무급종사자' 중에는 비교상의 편의를 위해 주당 18시간 미만 노동을 한 자도 포함되었음.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임금노동자의 경우 대체로 분포가 36-53시간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데 반해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분포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임금노동 부문에서는 초과노동을 하던 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준 반면 자영 부문에서는 '생존유지'를 위해 단시간 동안 자영업을 영위하는 불완전 취업형태의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에는 단시간 노동을 하는 자영업주의 비율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전일(full-time)노동을 하고 있다. 주당 36시간 미만 노동을 시간제(part-time) 노동이라 할 때, 1997년의 경우 남녀 모두에 있어서 시간제 노동을 하는 자의 비율은 임금 노동자 보다 자영업주의 경우가 훨씬 작다. 이것이 1998년에는 역전이 되기는 하였으나 양자간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다.

한편 1994년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간제 노동을 하는 자의 비율은 임금 노동자의 경우 남녀가 각각 10%, 25%인데 반해 자영업주의 경우 18%와 45%에 이르고 있다.<sup>12)</sup> 또한 1970년대 전반 이후 여성 자영업주가 많이 증가한 중요한 원인은 시간제 노동이 가능하다는 점에 여성이 이끌려 들어온다는 것이었다(Lombard (1993)). 우리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특히 여성 자영업주에 있어서 그 비율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매우 낮다. 무급가족종사를 함께 고려하여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신축적인 노동시간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노동 시장 참여를 하고자 하는 (특히 여성) 잠재 노동자들을 우리의 자영 부문이 아직껏

12) Bregger (1996)의 Table 1과 4 및 ILO(1995)로부터 계산.

충분히 흡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 산업 및 직업별 분포

<표 6>을 통해 산업별 자영업주의 비중과 자영업주의 산업별 분포<sup>13)</sup>를 보면 남자의 경우 자영업주 밀도가 가장 높은 산업은 역시 도소매음식숙박업(이하 ‘도소매업’으로 약칭)으로 이 산업 취업자의 절반이 자영업주이다. 산업-직업 행렬을 조사하여 보면 1998년의 경우 이 산업 자영업주의 반 이상은 직업 분류상 판매직 종사자이고 20%정도가 서비스직 종사자이다. 즉 이들 자영업주의 대부분은 영세한 판매상이나 음식점 경영자들인데, 바로 이들이 우리 나라 비농 자영업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 다음에 자영업주 밀도가 높은 산업은 ‘운수·창고·통신업’인데, 이들의 90%가량은 직업상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장비 운전사 및 단순노무자’(‘생산 및 단순노무직’으로 약칭)에 속한다. 즉 이 산업 대부분의 자영업주는 택시나 트럭 등을 보유하고 운전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다.

자영업주의 절대수로 따져 세 번째로 많은 산업은 ‘보건,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서비스업’) 분야인데 자영업주 집단 내의 이질성은 이 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있어서 가장 큰 편이다. 즉 이 산업 자영업주들은 직업분류상 전문관련직과 서비스직에 각 40%씩 양분되어 있는데, 이들 ‘서비스업’-전문관련직의 남자 자영업주 중 67%는 대졸 고용주로서 대부분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반면 ‘서비스업’-서비스직 종사자의 66% (43%)는 고졸(중졸)이하 자영업자로서 거의 전부가 이미용, 조리업 등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영업주이다.

여성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특정 산업에의 집중도가 훨씬 크다. 즉 여성 자영업주 10명중 9명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90%는 순수 자영업자로서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주이다. 한편 직업별 분포에 있어서도 이같은 산업별 분포의 특성을 반영하여 여성의 약 70%가 서비스직과 판매직의 두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13) 산업 및 직업과 관련한 시계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1993년부터 신분류가 적용됨으로 해서 그 이전의 것과 분류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3년 이후의 신분류와 1992년 이전의 구분류 상의 산업 및 직종 코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산업 및 직업 대분류 항목을 구성하였다. 산업; 농림어업(신 1-5, 구 11-13), 광업(신 10-14, 구 21-29), 공업(신 15-37, 구 31-39), 전기·가스·수도(신 40-41, 구 41-42), 건설(신 45, 구 51-52), 도소매·음식숙박업(신 50-55, 구 61-63), 운수창고통신(신 60-64, 구 71-72), 금융·보험·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신 65-74, 구 81-84), 보건·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신 75-, 구 91-). 직업; 고위관리자(신 11-13, 구 20-21), 전문직·기술관련직(신 21-34, 구 01-19), 사무관련직(신 41-42, 구 30-39), 서비스직(신 51, 구 50-59), 판매직(신 52, 구 40-49), 농림어업종사자(신 61-62, 구 60-64), 생산 및 관련종사자·운수장비운전자 및 단순 노무자(신 71-, 구 70-).

남녀간의 산업별 취업구성의 차이는 성별 자영업주 비율 격차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산업별 자영업주 비율이 남녀간에 동일하다고 하여도 여자는 자영업주 비율이 높은 산업에 취업되어 있는 비중이 더 낮기 때문에 여성의 자영업주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구성효과'라 하자. 반대로 산업별 취업자 구성이 남녀간에 동일하다고 하여도 각 산업에서의 여자의 자영업주 비율이 더 낮기 때문에 여성의 자영업주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밀도효과'라 하자. 1998년의 경우 여자의 비농 자영업주 비율은 19.03%로서 남자의 그것과의 격차는 -10.35%인데 그 중 구성효과는 5.36%, 밀도효과는 -16.30%이다. 즉 남녀간의 자영업주 비율격차는 각 산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자영업주 비율이 낮기 때문이며,<sup>14)</sup> 자영업주 비율이 높은 산업에 여성취업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그러한 격차를 상당부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6> 비농 자영업주의 산업·직업별 비중 및 분포

(단위 : %)

한·미·일 자영업주의 산업별 비중 및 분포											
국명	성	연도	계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	운수창고통신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사회 및 개인서비스
한국	남	85	26.8 (100)	1.9 (0.2)	14.1 (16.2)	1.8 (0.0)	11.3 (5.2)	64.4 (55.4)	18.7 (6.3)	28.3 (5.7)	18.0 (11.0)
		90	24.9 (100)	7.3 (0.2)	13.9 (17.6)	0.0 (0.0)	13.7 (7.9)	56.8 (46.2)	24.4 (9.3)	26.0 (6.7)	18.4 (12.1)
		97	28.1 (100)	15.5 (0.1)	17.4 (15.7)	0.0 (0.0)	19.2 (11.1)	53.2 (46.2)	33.7 (11.1)	17.9 (6.3)	19.0 (9.5)
		98	29.4 (100)	12.0 (0.1)	17.7 (14.3)	0.5 (0.0)	21.9 (9.9)	55.1 (47.7)	30.8 (10.5)	20.5 (7.6)	18.2 (10.0)
	여	98	19.0 (100)	0.0 (0.0)	5.9 (6.0)	0.0 (0.0)	3.6 (0.3)	29.3 (63.3)	4.4 (0.4)	6.9 (3.8)	19.6 (26.1)
일본	남	96	11.0 (100)	0.0 (0.0)	5.9 (13.4)	0.0 (0.0)	16.0 (22.4)	16.9 (30.6)	5.3 (4.5)	8.5 (2.7)	11.4 (26.4)
미국	남	94	8.4 (100)	2.0 (0.2)	2.0 (5.0)	0.8 (0.2)	19.4 (25.6)	7.5 (19.1)	6.2 (5.7)	11.8 (13.9)	9.9 (30.2)
자영업주의 직업별 비중 및 분포											
국명	성	연도	계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직	사무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 및 단순노무	
한국	남	98	29.4 (100)	55.9 (86)	19.4 (14.1)	2.2 (0.9)	54.4 (13.7)	73.7 (25.7)	9.3 (0.0)	24.2 (37.1)	
	여	98	19.0 (100)	83.5 (1.8)	19.1 (14.9)	0.7 (0.6)	31.4 (41.2)	34.1 (27.7)	0.0 (0.0)	9.2 (13.7)	

자료 : 한국; '경찰' 원자료. 미국; ILO (1995), 일본; 日本 總務廳 統計局, 「勞動力調査年報」, 1997.

14) 물론 각 산업에서 여성의 자영업주 비율이 낮은 중요한 이유는 여성의 다수가 실질적으로는 자영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통계방법상의 이유로 무급가족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는 국제비교를 위해 일본과 미국의 남자 자영업주의 산업별 분포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리의 제조업에서의 자영업주 밀도는 미국의 거의 9배에 달하며 자영업주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배에 이르는 점이다. 이같은 차이의 일부는 통계방법의 차이에 기인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법인화된 사업체를 소유·경영하는 자는 피용자로 분류되어 자영업주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규모로는 자영업주의 3분의 1정도인데 (Bregger (1996)),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도 원칙적으로는 미국과 동일한 통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어떤 사업체가 법적으로 법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 사업체가 대규모가 아닌 이상 이를 소유·경영하는 자들이 자영업주로 분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행히도 미일과의 자영업비율 격차의 얼마큼이 이같은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주어진 자료로는 확인이 어렵다.

‘도소매업’의 경우도 자영업주 밀도가 미국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와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sup>15)</sup> 이는 우리의 유통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미국 등의 경험에서 처럼 할인점을 포함하는 대형 유통업체가 늘어나고, 프랜차이즈 영업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이 부문의 자영업주 밀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같은 산업별 분포의 차이가 자영업주 비율에 있어서의 우리와 미국 및 일본과의 차이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국과 다른 나라간의 자영업주 비율의 차이를 앞에서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서 했던 것과 같이 구성효과와 비율효과로 요인분해를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은 실제로 18.36% 더 높은데, 구성효과는 0.06%에 불과하고 밀도효과가 16.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6)</sup> 또한 자영업주 비율의 실제 차이가 20.97%에 이르는 미국과 비교할 경우 그같은 수치는 각각 0.03%와 18.86%로서 역시 구성효과는 무시할 정도이다. 즉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은 각 산업에 있어서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그림 1>이 보여주듯이 다시 우리의 고용 구조가 아직 낙후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15) 裴震漢(1998)은 ‘도소매업’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실현이익의 분식과 은폐, 그에 따른 낮은 조세부담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리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이들 서비스업에서의 자영업주 비율이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16) 여기서의 구성효과는 우리가 일본과 동일한 산업별 자영업주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경우가 일본에 비해 자영업주 비율이 높은 산업들의 취업자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영업주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이다. 밀도효과는 우리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이 일본과 동일하다고 하여도 각 산업에서의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영업주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이다.



### 3. 자영부문 취업의 불안정성

자영부문은 활발한 내부동학으로 인해 산업과 고용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영 부문은 본래 소득위험이 크고 사업실패로 인한 퇴출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66년부터 1981년까지 사이에 자영업에 신규로 진입한 남자들 중 3분의 1이 3년 안에, 그리고 반 정도가 7년 안에 자영업으로부터 퇴출하였다 (Evans and Leighton(1989)). 또한 1988년 영국의 경우 1년 전에 자영업 주였던 자들 중 23%는 실업상태에 있었고 27%는 비경제활동인구화 하였다(Hakim (1989)).

이처럼 자영업주 형태로의 고용이 불안정한 하나의 이유는 자영부문에 진입하는 사람들 중에는 원초적인 형태의 노동력 판매 수단으로서 자영업을 택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들 '생계형' 자영업자의 다수는 임금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다.<sup>17)</sup>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할 경우 임금부문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고, 임시직 등의 불안정한 형태의 임금 노동자로의 전환일 것이다. 그 정도의 기회조차 없는 자들은 비경제활동인구화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의 자영업주는 업종을 변경한다던가 보다 영세한 자영형태로 축소한다던가 해서 자영부문에 계속 남아있고자 할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는 자영부문 취업의 불안정성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후속연구에서 이를 분석할 예정이며, 여기에서는 제한된 자료를 가지고 약간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우선 전직 실업자들을 취업 당시의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한 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가 제시된 <표 7>을 보자. 표의 수치는 조사 당시 실업자의 전직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전직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실업기간은 물론 비경제활동인구화할 확률과도 별 관계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종사상 지위에 있던 자가 일정기간 후에 실업될 확률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같은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표를 보면 자영근로자가 실업자로 될 확률은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할 수 있는 상용직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 이들 자영근로자보다는 임시직 형태의 임금 노동자(특히 일고)가 실업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다. 그리고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종사상 지위별 전직실업자의 분포는 매우 안정적인 바, 이는 실업 발생에의 '기여도'에 있어서 자영부문의 역할은 별로 변화하지 않아 왔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가지 주목되는 것은 '실업될 확률'에 있어서는 자영부문 종사자 중에서는 가족

17) 미국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자영업 부문으로 신규로 진입할 확률은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이 낮을수록, 한 기업에서의 근속년수가 짧을수록, 직장 이동 횟수가 많을수록, 실업자일수록 커진다 (Evans and Leighton (1989)).

종사자의 경우가 가장 작으며 순수 자영자, 고용주의 순으로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대다수는 자신의 현재의 취업형태를 임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순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자영자의 경우 사업에 실패할 경우 임시 및 일용직 형태로 전환됨으로써 실업 상태를 회피하는 자의 비율이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급가족 종사자가 '실업될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그 대종을 이루는 여성의 경우 가족사업이 실패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남성 배우자가 임금부문으로 전직을 할 때에 실업상태로 가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화 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표 7> 종사상 지위별 전직실업자의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상 용	임 시	일 용
1997	1.1 (7.1)	0.7 ( 8.2)	0.2 (1.0)	0.9 (24.1)	2.4 (41.9)	2.4 (17.6)
1990	1.7 (8.5)	1.2 (10.5)	0.2 (0.8)	1.1 (27.3)	3.2 (42.9)	1.4 (10.0)
1985	3.5 (7.7)	2.4 (12.3)	0.2 (0.5)	2.6 (33.3)	6.5 (29.5)	5.2 (16.7)

자료: '경활' 원자료.

주: 표의 수치는 종사상 지위별 전직실업자 수를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이며 괄호 안의 수치는 전직실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합계가 100임.

이와 관련하여 柳在雨·裴茂基(1984)는 약간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1983년 3월 기준으로 한 달 이후에 동일한 종사상 지위에 계속 남아 있는 자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자영자의 경우가 고용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는 <표 7>에서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자영부문 내의 세 범주는 실제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부문에 있는 노동자는 상황에 따라 각 범주를 넘나들 수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남자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에 대하여 한달 이후에도 자영부문 내에 계속 남아 있을 확률을 계산해 보면 각각 97.40%, 95.95%, 87.90%로 고용주의 취업안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sup>18)</sup> 1개월 내에 실업될 확률로 따져서도 고용주가 가장 작고 가족종사가 가장 높아 <표 7>이 보여주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자영업 부문의 취업안정성에 관련하여서는 통계청이 1998년 9월중에 '경활' 부가 조사를 한 결과자료<sup>19)</sup>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자료에는 1997년 10월부터 1998년 9월까지 사이에 직장을 옮긴 전직자(轉職者) 수가 나와 있는

18) 참고로 상용고의 경우 한달 후에 상용고로 계속 있을 확률은 95.3%였다.

19) 통계청, 「1998년 10월 고용동향」, 1998. 11.

데, 이를 1997년 10월 현재 전산업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로 나누어 얻은 '전직률'은 자영업주, 무급가족, 상용, 임시, 일용의 경우 각각 8.5%, 8.0%, 8.0%, 24.4%, 45.4%이다. 즉 전직률로 측정된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자영업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나 임시 및 일용직과 비교해서는 <표 7>이 시사하는 것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단, 위의 자료는 농업 종사자를 포함하는 한편 실업자로 바뀐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서 다른 자료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어렵게 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한편, 같은 자료는 전직을 한 자영업주의 46%는 다시 자영업을 하고 있고 41%는 임시 및 일용직으로 옮겨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으로 옮긴 자는 9%에 불과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전직(轉職)을 통해 새로이 자영업주가 된 자 중 전직(前職)이 상용직이었던 자는 19%, 자영업주였던 자는 40%이며, 37%는 임시 및 일용직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영업주가 사업에 실패할 확률은 높지만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임금부문으로 되돌아가 상용직 형태의 안정적인 고용을 갖게될 확률은 매우 작으며, 거의 대다수는 자영부문에 잔류하여 또 다른 형태의 자영업을 영위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새로이 자영업주가 되는 자들은 주로 임금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한 임시·일용 노동자들이다. 이처럼 자영업과 상용직간에는 노동이동을 통한 '교류'가 드물고 대신 임시·일용직과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사실은<sup>20)</sup> 평균적으로 보아 자영업주와 노동시장 특성에 있어 보다 가까운 집단은 임시·일용노동자임을 보여준다.

#### 4. 외환 위기와 자영부문의 변화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7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사이에 비농취업자 수는 남녀 각각 수치로는 670천명, 619천명, 그리고 비율로는 5.9%와 8.2% 감소하였다. 반면 자영업주는 남녀 각각 51천명과 90천명이 감소하여 비율 상으로는 1.6%와 6.4%감소에 그쳤다. 1997년과 1998년 사이의 자영업주 비율 상승은 이처럼 자영업주의 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자영업주 수의 감소율이 더 작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영업주 내부에서의 변화이다. 1년 사이에 고용주는 남녀 각각 167천명과 63천명, 비율로는 12.8%와 20.0% 감소하였으며 여자 자영자도 27천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남자 자영자의 경우에는 116천명이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고용주의 감소의 상당부분을 상쇄하여 자영업주의 감소, 나아가 우리 경제 전체의 고용 감소폭을 줄이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적어도 1997년 이후의 불황기에 있어서는 자영업부문 중에서도 특히 순수자영 부문이 실업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다.<sup>21)</sup>

20) 그것은 '교류'는 자영업주 중에서도 도시빈민층 성격의 영세 자영업주들에게 한정된 현상일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불황기에 순수자영부문이 새로이 고용기회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표 8>은 비농부문의 산업별로 남자 자영업주 수의 변화 및 증감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환위기 과정에서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주의 감소율이 가장 컸으며 도소매업에서의 감소폭도 상당히 컸음이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세 산업에서 고용주가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자영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수명 이내의 유급직원을 고용하고 있던 영세 고용주들 중 다수가 이들을 해고하고 순수 자영업자로 전환된 때문일 것이다. 즉 자영자 증가의 상당 부분은 순수한 고용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세한 사업주들이 보다 영세해지는 과정에서 종사상 지위상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표 8> 1997-98의 남자 비농 산업별 자영업주 수의 변화

(단위: 1,000명 (%))

산업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	운수창고 통신	금융, 부동산, 사업 서비스
자영업주 계	-51 (-1.6)	-51 (-10.4)	-44 (-12.4)	21 ( 1.4)	-24 (-6.8)	38 (19.3)
고용주	-167 (-12.8)	-63 (-20.9)	-69 (-28.3)	-55 (-10.2)	-4 (-10.1)	18 (24.3)
자영자	116 ( 6.3)	12 ( 6.0)	25 ( 23.2)	75 ( 3.2)	-20 (-5.6)	20 ( 5.3)

자료: '경팔' 원자료.

주: 1. 표에서의 수치는 1997. 10-1998. 10 기간의 취업자 수 변화이며 괄호 안은 1997. 10. 현재 취업자 수 대비 증가율임.

2. 통계적인 유의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주 수의 변화가 1만 명이 넘는 산업만을 표에 포함하였음.

이 경우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자영업주 수의 순 증가가 이루어진 산업이다. 이들 산업이야말로 경기 하강시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산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주 수는 감소했으나 그것을 능가하는 크기로 자영자 수의 증가가 있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의 증가는 주로 판매직과 특히 '생산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영자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는데 후자의 경우 주로 '행상 및 단순 서비스직 근로자'와 기계 정비공의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자영자와 고용주 모두 늘어났는데, 직업상 주로 기술공이거나 보험모집 및 부동산중개, 행상 및 단순 서비스 종사자들이다.

요약하면, 외환위기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자영자 순증가가 있었는데, 이 중 다수는 자영 사업이 보다 영세해지면서 고용주가 자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

21) 무급가족종사자는 1년 사이에 비농부문에서는 18천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농업에서는 224천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농업인구 증가의 약 65%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볼 때 자영자 증가의 반 정도만이 자영부문에서 새로이 창출된 고용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신규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부문에서 밀려난 후 자영 부문에서 취업기회를 찾은 사람들로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방식으로서 노점상과 같은 아주 영세한 판매업을 택한 사람들이거나 주로 기능공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기계정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들 중 다수는 고용보험 등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며 다른 기회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필요로 할 사람들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자활 기회를 자영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문이 실직과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자영업부문 고용비중 변화요인의 분석

### 1. 비중 변화의 요인 분해

이제 시계열상으로 우리 나라의 자영업주 비중이 감소추세에서 1990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 요인을 분석하여 보자. 이를 위해 자영업주 비율 변화에 대해 요인 분해를 한 결과가 <표 9>에 정리되어 있다. 표에서의 '구성효과'는 인구학적 특성으로 구분된 집단들 각각에 있어서의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 즉 '자영업주 밀도'가 불변인 채로 있어도 자영업주 밀도가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구성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비율 변화효과이다. 또한 '밀도 효과'는 각 집단별 취업자 구성비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라든가 각 집단의 '자영업주 밀도'가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한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분을 가리킨다. 취업자 비중과 밀도의 동시 변화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표에서 생략하였다.

먼저 첫째 줄에서 취업자 중의 남녀 구성의 변화가 자영업주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자영업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자의 취업자 비중이 증가해옴으로써 전체 자영업주 밀도를 떨어뜨린 구성효과는 무시할만할 정도로 작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분석기간 중의 여성 취업자의 비중 증가가 작았기 때문이다. 한편, <표 1>에서 보듯이 1990년 이후 여성 자영업주 밀도의 상승은 2.1% 포인트에 그쳤는데 이는 남자의 4.5% 포인트 증가에 비해 훨씬 작다. 이는 적어도 1990년 이후에 있어서는 '밀도효과'에 있어서도 여성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1990년과 1997년 사이의 자영업주 비율 증가에 있어서 여성

자영업주의 증가에 의한 기여도는 상호작용효과까지 포함하여 전체의 30%이다. 이는 1975-1988년간 미국의 경우 여성 자영업주의 증가가 전체 자영업주 비율 상승의 3분의 2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Devine(1992))과는 대조적이다.

<표 9> 자영업주 비율 변화의 요인 분해

(단위: %)

구분 기준	자영업 구분		1985-90			1990-97			1997-98		
			실제 변화	구성 효과	밀도 효과	실제 변화	구성 효과	밀도 효과	실제 변화	구성 효과	밀도 효과
성	자영업주	전체	-2.73	-0.11	-2.59	2.55	-0.04	2.60	0.98	0.06	0.92
연령	자영업주	남	-1.90	1.51	-3.10	3.17	1.90	1.46	1.29	0.68	0.70
		여	-3.72	1.42	-4.84	1.71	1.85	0.18	0.36	0.46	-0.11
학력	자영업주	남	-1.90	-0.25	-1.53	3.17	-0.46	3.72	1.29	-0.38	1.84
		여	-3.72	-1.15	-3.03	1.71	-0.81	2.72	0.36	-0.20	0.55
산업	자영업주	남	-1.90	-1.41	-0.72	3.17	1.91	1.99	1.29	0.49	0.89
		여	-3.72	-2.24	-1.77	1.71	1.99	-0.10	0.36	0.60	-0.20
학력· 산업· 연령	자영업주	남	-1.90	-0.64	-1.65	3.17	2.94	0.44	1.29	1.10	0.15
		여	-3.72	-1.24	-3.08	1.71	3.07	-0.97	0.36	1.10	-0.84
	고용주	남	0.85	0.59	0.06	0.97	1.92	-0.82	-0.85	0.69	-1.71
	자영업자	남	-2.75	-1.13	-1.68	2.20	1.02	1.26	2.14	0.41	1.86

'경활' 원자료.

다음에 <표 3>에서와 동일한 연령구간으로 나누어진 집단들에 대해 자영업주 비율 상승의 요인 분해를 해보면 1985년 이후 연령구성의 변화는 자영업주 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에 대해 말하자면 자영업주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30대 후반 이후자의 취업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이 그 기본적인 이유이다. 1985년과 1990년 사이의 경우 남자 연령구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자영업주 비율은 3.10%가 감소했을 것이나 역방향의 구성효과로 인해 감소폭은 1.90%에 그쳤다. 자영업주 비율이 3.17% 상승한 1990-1997년 기간에는 그같은 증가의 60%가 구성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졸이하, 고졸이하, 전문대졸이하, 대졸이상의 4가지 학력으로 구분된 집단들에 대해 요인분해를 한 결과를 보면 연령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학력별 구성의 변화는 전체 자영업주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왔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고용주의 교육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높기는 하나 자영업주 전체의 학력은 취업자 전체의 그것보다 낮은 바, 이같은 상황에서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의 상승은 자영업주의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성효과의 크기는 매

우 작은 편이다. 즉 전체 자영업주 비율의 증감 중에서 학력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다음, 산업별로 구분된 집단들에 대한 요인분해의 결과를 보면 전체 자영업주 비율 변화의 상당부분은 산업별 구성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산업별 구분에 의한 구성효과는 다른 구분의 경우와는 달리 전 기간에 있어 자영업주 비율 변화와 부호가 일치하며, 그 크기에 있어서도 자영업주 비율 변화의 절반 이상이 된다. 1985-1990년 기간의 경우 그같은 구성효과는 남자 자영업주 비율 하락의 74%를 설명한다. 한편 이 시기남자의 총 구성효과는 -1.41%인데 '도소매업'에서의 구성효과만 -1.75%에 이른다. 즉 산업별 구성효과는 자영업주 밀도가 가장 높은 산업인 '도소매업'의 취업자 비중 변화<sup>22)</sup>에 의해 주도된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의 총 밀도효과는 -0.72%였는데 '도소매업'에서의 밀도효과만 -1.75%에 이른다. <표 6>에서 보듯이 이 산업의 자영업주 밀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를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1985년과 1990년 사이 남자의 경우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및 자영업주 비율의 감소만으로도 전체 자영업주 비율을 3.53% 낮추는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자영업주 비율의 실제 감소 폭(1.90%)보다도 큰 것이었다. 결국 1985년과 1990년 사이의 자영업주 비율의 감소의 대부분은 '도소매업'에서의 취업자 비중의 감소와 자영업주 밀도의 하락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보다 큰 관심을 갖는 바인 1990년 이후의 상승에 있어서도 역시 절반 가량이 구성효과에 의한 것이다. 또한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에 있어서의 '도소매업'의 역할은 이 시기에 있어서도 매우 컸다. 1990-1997 사이 남자의 경우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 증가에 의한 구성효과만도 2.37%에 이르는데 이는 남자 자영업주에 있어서의 총 구성효과 1.91%를 능가하는 것이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시기 남자의 경우를 보면,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주의 증가는 전체 자영업주 비율을 1.58%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에 있어서의 실제 상승의 절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밀도효과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1.44%, 건설업과 '금융,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각각 0.77%와 0.88%이다.

이상의 논의는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 상승에는 연령별 구성의 변화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1985년 이후의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산업별 구성의 변화와 더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기간 동안의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는 남자의 경우는 절반 이상, 여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에 의하였던 것이다. 산업 중에서도 '도소매업'은 전체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성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이상의 논의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논의는 '도소매업'에서의 자영업주 비율이 독립적으로 변동하고

22) 남자 취업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는 1985년의 23.1%에서 1990년에는 20.3%로 감소하였다.

그것이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같은 산업에서의 자영업주 수 및 비율의 변동은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변동에 의해 야기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영업주를 포함하는 취업자를 성, 연령, 학력, 산업 중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만 구분하여 구성 효과를 계산하였는데 그 부호는 구분기준에 따라 서로 반대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들 구분기준들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각 범주별 구성 효과는 증폭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밀도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의 마지막 줄에는 무학에서부터 대졸까지 6개의 학력별 집단 각각을 9개의 산업으로 나눈 다음 각각을 다시 13개의 연령별 집단으로 나누어 얻은 총 702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자영업주 비율변화의 요인분해를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985-1990년 남자의 경우 자영업주 비율의 감소에 있어서 구성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내외에 불과하다. 즉 이 시기의 자영업주 감소는 주로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의 감소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1990년대 남자 자영업주 비율 증가의 대부분은 구성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1990년 이후 7년간에 자영업주 비율은 3.17%나 상승하였는데 그 중에서 밀도효과는 0.44%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고용주와 자영자로 세분하여 요인분해를 해보면 매우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남자 고용주의 경우 구성효과는 전기간에 걸쳐 취업자 중에서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왔다. 반면 자영자의 경우 구성효과는 자영업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부호를 가지나, 총효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1990년 이전에는 자영업주 전체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199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주목되는 것은 1990년대의 경우 각 집단 내에서 고용주가 되려는 성향은 감소했는데 반해 자영자가 되려는 성향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에 있어서의 취업자 중 자영자비율 증가의 반 이상은 이같은 밀도효과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처럼 자영자에 있어 밀도효과가 크데도 불구하고 고용주 집단의 밀도효과가 음의 부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주 전체에 있어서의 밀도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자영업주 비율 증가에 있어서 밀도효과에 의한 부분이 미미하고 대부분이 구성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미국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5년 이후의 성별 자영업주 비율의 상승이 산업, 인종, 연령, 학력 구성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이 각 집단 내에서의 자영업주 비율의 상승(즉 밀도효과)에 의해 일어났다(Devine (1992)).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도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의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밀도효과)가 1990년도 이후 남자 자영업주 비율의 상승에 있어서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 2. 로짓(Logit) 분석

위의 요인분해 방법은 노동자들의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가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식별해 주는 데는 유용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의 한 변수의 변화 효과를 분석하기가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소절에서는 미시자료의 장점을 활용하여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이 자영업주가 될 확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같은 확률이 시간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본다.

<표 10>은 1998년도 자료를 이용한 로짓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주로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무엇에 영향받는지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의 경우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실질적인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로짓 분석의 결과를 1985년 이후의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요인을 찾는데 이용하고자 하는데, <표 8>에서 보듯이 여성의 경우 1990년 이후의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는 산업별 구성의 변화에 의해 거의 전부가 설명이 되며 따라서 로짓 분석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작다는 이유도 있다.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자영업주가 되는 경향이 있는가에 대해 분석을 할 경우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설명변수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유동성 제약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Evans and Jovanovic(1989), Evans and Leighton(1989), Blanchflower and Oswald(1998)). 또한 자영업주가 임금부문에 비교우위를 가진 자들인지 아니면 비교열위를 가진 자들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의 소득이라든지 실업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여기서 우리가 사용된 자료에는 이같은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관련 변수가 빠져 있는 우리의 로짓 분석 결과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열에는 남자를 대상으로 경력, 가구주인지의 여부, 배우자 유무, 학력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하고 자영업주인지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짓 식을 추정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경력'은 나이에서 교육년수와 6을 뺀 것으로 정의하였다. 결과를 보면 전문대졸 더미를 뺀 모든 변수들의 계수가 1%에서 유의하며 거의 모두가 예상대로의 부호를 갖고 있다. 즉 가구주일수록, 배우자가 존재할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자영업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학력과 관련해서는 대졸자의 경우 고졸자에 비해서나 중졸이하자에 비해서나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낮다. 산업대분류 더미를 추가한 회귀식의 결과는 (2)열에 있는데 대졸자가 자영업주가 될 확률은 중졸이하자 보다는 높으나 여전히 고졸자보다는 낮게 나타난다.

<표 10> 자영업주 결정식의 추정(1998. 10.)

추정방법	로짓		다항로짓 (MNL)					
	남자		남자		남자		전체	
대상	자영업주=1		고용주=1	자영자=1	고용주=1	자영자=1	고용주=1	자영자=1
종속변수	자영업주=1		고용주=1	자영자=1	고용주=1	자영자=1	고용주=1	자영자=1
	(1)	(2)	(3)	(4)	(5)	(6)	(7)	(8)
상수	-2.983 (-30.46)	-4.177 (-34.60)	-5.066 (-31.82)	-2.959 (-33.60)	-6.011 (-34.62)	-4.660 (-42.20)	-6.351 (-47.37)	-4.493 (-56.46)
남자	-	-	-	-	-	-	0.373 (4.84)	0.313 (6.72)
가구주	0.426 (5.11)	0.556 (5.88)	0.813 (5.83)	0.342 (4.16)	0.945 (6.68)	0.510 (5.76)	1.208 (14.74)	0.725 (15.51)
유배우자	0.545 (7.83)	0.561 (7.26)	0.607 (5.67)	0.546 (7.67)	0.616 (5.67)	0.543 (7.06)	0.413 (5.38)	0.371 (7.89)
경력	0.098 (12.55)	0.123 (14.21)	0.147 (13.35)	0.070 (10.53)	0.179 (15.82)	0.103 (14.15)	0.167 (17.83)	0.062 (12.61)
경력 <sup>2</sup>	-1.E-03 (-8.57)	-2.E-03 (-9.99)	-2.E-03 (-10.96)	-8.E-04 (-6.95)	-3.E-03 (-12.57)	-1.E-03 (-10.23)	-3.E-03 (-14.22)	-6.E-04 (-7.20)
학력: 중졸이하	-0.250 (-4.76)	-0.289 (-5.11)	-0.656 (-8.25)	-0.052 (-1.03)	-0.772 (-9.39)	-0.053 (-0.95)	-0.880 (-12.67)	-0.098 (-2.29)
전문대졸	-0.079 (-0.92)	0.012 (0.13)	0.295 (2.87)	-0.401 (-4.34)	0.371 (3.47)	-0.322 (-3.26)	0.411 (4.34)	-0.339 (-4.25)
대졸이상	-0.385 (-7.74)	-0.239 (-4.27)	0.327 (5.69)	-0.980 (-16.15)	0.551 (8.81)	-0.815 (-12.51)	0.607 (10.61)	-0.607 (-11.35)
산업더미	N	Y	N	N	Y	Y	Y	Y
N	19699	19699	19699		19699		33370	
Pseudo R <sup>2</sup>	0.069	0.175	0.070		0.177		0.158	
$\chi^2$	$\chi^2(7)=971$	$\chi^2(13)=2092$	$\chi^2(14)=2184$		$\chi^2(26)=5547$		$\chi^2(28)=7578$	
Log Likelihood	-11109.4	-9846.9	-14557		-12876		-20134	

주: 괄호 안은 t 값이며, '경력'은 나이에서 교육년수와 6을 뺀 수치임.

이같은 로짓 분석의 단점은 교육 수준 등과 관련하여 이질적인 고용주 집단과 자영자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자영업주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분석을 한다는 점이다. 대안적인 방법의 하나가 다항로짓(multinomial logit; MNL)에 의한 추정인데, 이 방법에서는 노동자가 임금노동, 고용주, 자영자 세 개의 상호 독립적인 종사상 지위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sup>23)</sup>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임금노동

23) 이처럼 세 개의 범주중의 하나의 선택과 다른 범주의 선택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하는 가정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만일 한 노동자가 자영부문으로 들어올지의 여부를 미리 결정하고 그 이후에 고용주가 될 것인지 순수자영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순차적으로(sequential) 이루어지

동자를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고 MNL을 추정한 결과는 (3)-(4)열에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계수가 우리의 예상대로의 부호를 갖고 있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커지며 자영자가 될 확률은 학력이 낮아질수록 커지는 것이다. 산업 더미를 추가한 경우의 추정결과는 (5)-(6) 열에 제시되어 있으며, 여자를 포함한 표본전체에 대한 추정 결과는 (7)-(8)열에 제시되어 있는데 (3)-(4)열의 결과와 별로 다르지 않다.

이같은 결과는 자영업주가 숙련, 또는 능력 등에 있어서 임금노동자보다 열위에 있는 자들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흥미로운 시사를 준다. 즉 그것은 적어도 학력으로 대표되는 숙련 또는 능력의 수준에 있어서 고용주와 자영자는 이질적이며 임금노동자와 비교해서 반대방향의 위치에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수준과 자영업주 비율간의 관계는 당연히 자영업주 내의 두 집단의 구성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는 <표 10>의 (1)-(2)열과 MNL추정결과의 비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Evans and Leighton (1989)은 로짓 분석에서 교육수준과 자영업주가 될 확률간의 관계에 대해 사용된 데이터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얻고 있는데, 우리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는 자영업주 내의 이같은 기본적인 이질성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위의 결과를 이용하여 자영업주 비율 변화에 있어서 노동자 집단의 구성 또는 산업별 취업구성의 변화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이를 위해 먼저 (5)-(6)열과 같은 회귀식을 1985년과 1990년도의 자료에 대해 추정하였다. 산업 더미가 포함된 회귀식을 선택한 것은 산업별 자영업주 비율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된 식들을 가지고 자영업주 비율이 가장 높은 두 산업- 즉 '도소매업과 제조업-에서, 40세 남자 가장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고용주나 자영자가 될 확률을 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1>에 요약되어 있다.

고용주가 될 확률에 있어서 특히 고졸자의 경우 1985년의 추정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표는 40세 남자로서 고졸자나 대졸자, 제조업 종사자나 '도소매업' 종사자 모두에 있어서 고용주나 자영업주가 될 확률이 1985년에 비해 1990년에는 감소하였다가 1998년에는 다시 증가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개인 특성별 구성이나 산업별 취업구성의 변화가 1990년 이후의 자영업주 비율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은 이미 보았는데, 표는 노동자들이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이 증대되어왔다는 점 또한 그같은 증가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

는 경우에는 nested logit 모형이 보다 적합한 분석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택시를 운영하기로 할 경우에는 자영부문으로의 진입은 순수자영자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전문직 종사자가 개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고용주가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직종, 산업의 특성에 의해 자영부문으로의 진입여부와 유급종업원의 고용 여부가 동시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클 때에는 MNL이 보다 적합한 분석도구가 될 것이다.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같은 성향 증대 현상은 산업 중에서는 '도소매업', 고용주보다는 자영자에게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

<표 11> 자영업주가 될 확률 및 그 변화

(단위 : %)

산 업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고 졸		대졸이상		고 졸		대졸이상	
자영업구분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	자영자
1985	10.06	2.79	17.26	1.16	20.65	39.58	39.76	18.42
1990	3.86	2.76	6.11	1.00	9.18	35.14	17.60	15.39
1998	4.14	7.33	7.26	3.28	10.07	44.98	21.23	24.18

주: 표의 수치는 <표10>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40세 남자 가장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고용주 또는 자영자가 될 확률임.

<표 10>과 <표 11>을 종합할 때 1990년 이후에는 인구적 특성으로 구분된 각 집단들 내에서 자영업주 밀도가 증대되어왔거나 적어도 그같은 밀도의 하향추세가 멈추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자영 부문에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을 흡인(pull)해온 결과일 수가 있다. 노동자들의 숙련 증가로 인한 기업가적 능력의 증대, 자산 축적에 따른 유동성 제약의 완화, 컴퓨터의 보급 등에 따른 사업 창설비용(set-up cost)의 감소 등은 그같은 기회확대와 관련되는 요인들이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 비중의 감소,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감소 등이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그에 상응하여 반사적으로 자영업주 비율의 상승이 이루어져 왔을 가능성도 있다. 각 인구 집단에 있어서 고용주가 되려는 성향보다는 순수자영자가 되려는 성향이 더 크게 증대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같은 가능성에 약간의 무게를 더 두게 한다. 만일 그같은 추측이 맞고 근래의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가 영세 자영자의 비중 증가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득분배의 악화, 중산층의 비중 감소 등을 수반할 것이다. 또한 이들 영세 자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은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용, 산업변동, 소득분배, 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우리 경제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껏 학문적인 조명을 별로 받아오지 못하였던 자영업부문에 관심을 두고 이 부문 취업자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시간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비농 남자 취업자의 30%가량이 자영업주인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물론 우리와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처럼 자영업주 비율이 높은 원인은 취업자 구성의 특성 등에 있지는 않다. 아마도 우리의 경우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일 것이다.

한편,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와 여러 면에서 이질적이거나 그에 못지 않게 자영업주 집단내의 이질성 또한 매우 크다. 후자의 상당부분은 자영업주 범주에 고속련-고능력의 '기업가형' 자영업주와 저속련-저능력의 '생계형' 자영업주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데, 교육 수준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전자는 고용주에 그리고 후자는 순수자영업자에 가까운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취업자 중의 자영업주 비중과 연령간의 관계를 보면 강한 양의 관계가 발견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노동자들이 자영업 부문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주로 이미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천천히 노동력으로부터 퇴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부문 종사자는 고용안정성에 있어서 상용직과 비슷하며, 임시·일용직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다. 그러나 자영업주와 상용직 간에는 노동이동을 통한 '교류'가 드문 편이다.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평균적으로 보아 노동시장 특성에 있어 자영업주는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 노동자와 보다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997년 말 이후의 외환위기 과정에서는 고용이 감소하는 가운데 순수 자영업자의 수는 11.6만 명이 늘어났는데, 반 정도는 고용주가 자영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나머지 반 정도가 영세한 판매업 등에서 새로이 창출된 고용으로 보인다. 이같이 순수자영 부문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도시의 영세자영부문이 외환위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실업 부담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하여왔으며 실직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자영업주 비율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소하던 추세가 1990년을 기점으로 하여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그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요 과제였다. 요인 분해 분석의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의 비율 증가는 연령구성의 변화에 의한 부분도 있으나 가장 중요하게는 산업별 취업자 구성의 변화, 그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의 취업자 비중 및 순수 자영업자 비율의 증가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자영업주가 되려는 노동자들의 성향이 증대되어왔다는 점 또한 자영업주 비율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음이 요인분해 분석과 로짓 분석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이같은 성향 증대가 임금부문에서의 기회축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영부문에서의 기회확대에 의한 것인가에 따라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가 소득분배, 고용정책, 사회정책 등과 관련하여 갖는 함의는 서로 다르게 된다. 고용주가 되려는 성향보다는 자영자가 되려는 성향의 증대가 더 컸다는 점이 시사하는대로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가 임금부문에서의 기회축소에 의한 것일 경우, 그같은 자영업주 비율의 증가는 도시빈민적 성격의 영세 자영업주의 비율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다시 소득분배의 악화, 중산층의 비중 감소 등을 의미하게 된다. 또한 이들 영세 자영자들이 갖고 있는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도 점점 더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영업주가 되려는 성향 증대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영업주의 소득과 이들의 진입 및 퇴출 행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는 후속연구로 미룬다.

## 참 고 문 헌

- 柳在雨·裴茂基, 「韓國의 勞動市場 플로우와 失業」, 『勞動經濟論集』 제7권, 1984. 10.
- 裴震漢, 「製造業과 서비스業間의 賃金隔差 發生 原因」, 『經濟學研究』 제46집 제3호, 1988. 9.
- Aronson, Robert L. *Self-Employment: A Labor Market Perspective*. Ithaca, New York: ILR Press, 1991.
- Blau, David.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June 1987) : 445-67.
- Blanchflower, David, and Oswald Andrew J.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January 1998): 26-60.
- Bregger, John E.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07 (January/February 1996): 3-9.
- Devine, Theresa J. "The Recent Rise in U.S. Self-Employment." manuscript,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92. 3.
-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June 1989): 519-35.
- Evans, David S., and Jovanovic, Boyan.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August 1989): 808-27.
- Hakim, Catherine. "New Recruits to Self-Employment in th 1980s." *Employment Gazette* 97 (June 1989): 286-97.
- 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 1995.
- Jovanovic, Boyan. "The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50 (May 1982): 649-70.
- Lombard, Karen V. "Female Occupational Choice: Working for Oneself or for Someone Else."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1993.
- Lucas, Robert. "On the Size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 (Autumn 1978): 508-23.
- Meyer, Bruce. "Why Are There So Few Black Entrepreneurs?" NBER Working Paper No 3537, 1990.
- Moore, Robert L. "Employment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August 1983): 496-501.

OECD, Employment Outlook, 1992.

Quinn, Joseph F. "Labor-Force Participation Pattern of Older Self-Employed Workers." Social Security Bulletin 43 (April 1980): 17-28.

Ryoo, Jaewoo. "A Theory and Evidence of Entrepreneurial Choice." manuscript, Univ. of Pennsylvania, 1994. 1.